

‘무안형 뉴딜사업’ 전략적 추진한다

전남도 연계 46건 확정...총 1,801억원 투입
메이커스페이스 조성·도심녹지 인프라 확대

무안군이 국비 889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801억원을 투입해 무안형 뉴딜사업을 추진한다.

1일 무안군에 따르면 군은 한국판 뉴딜사업에 맞춰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2차 무안형 뉴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무안군은 두 차례의 보고회를 통해 총 91개의 사업을 발굴했다. 그중 실행가능성이 높고 한국판 뉴딜 3대 정책(디지털·그린·안전망 강화), 전남도 대응계획과 연계되는 전략사업 46건을 최종 확정했다.

무안형 뉴딜사업은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구축, 재해위험지구 상시모니터

링 시스템 구축, 가상현실(VR) 전지훈련장 조성 등 디지털 뉴딜사업 20건 ▲모두누리 숲 조성, 생활밀착형 숲 조성,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확대 등 그린 뉴딜사업 21건 ▲4차 산업혁명 대비 인재양성과 취약계층 일자리 프로젝트 등 안전망 강화사업 5건이다.

특히 무안군은 디지털 인재양성과 ICT 기반 창작공간 조성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조성사업을 디지털 뉴딜 대표사업으로 추진해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녹색 생태계 조성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모두누리 숲 조성사업을 그린 뉴딜 대표사업으로 선정해 도심녹지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무안군은 최근 한국판 뉴딜사업에 발맞춰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안형 뉴딜사업 2차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무안군 제공

김산 군수는 “디지털과 그린 경제로 빠르게 전환되는 현실에서 현 상황을 지역 내 일자리와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삼아 기초인프라 발굴과 투자에 주력하겠다”며 “실행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

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46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시책에 반영하고 국비 건의와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등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박주현 기자

강진 성전면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주민협의체 회원 8일까지 모집

강진군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성전면 소규모 재생사업을 위해 본격 추진한다.

1일 강진군에 따르면 ‘일터와 삶터’를 잇는 달무릇 행복마을’이라는 사업명의로 시행하는 소규모 재생사업은 성전면 소재지 일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총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 ▲일터와 삶터를 잇는 커뮤니티 거점 공간 조성·운영 ▲로컬콘텐츠활용 주민경제조직 육성 ▲주민참여형 재생계획 수립 및 안전마을 만들기 등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강진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오는 8일까지 주민협의체 회원을 모집한다.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고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대표 모임이다. 주민협의체 회원은 관련 교육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대표로서 활동한다.

김병기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도시재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큰 힘이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신안군 섬지역의 해양안전과 치안을 책임지게 될 신안파출소가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목포해경 제공

목포해양경찰서 ‘신안파출소’ 개소

목포해양경찰서는 신안군 섬지역의 해양안전과 치안을 책임지게 될 신안파출소가 업무에 돌입한다고 1일 밝혔다.

신안파출소는 목포해경 소속 파출소 중 7번째로 출범하는 기관으로서 도서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진기지 임무를 수행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소식 행사를 모두 생략하고 업무에 돌입한 신안파출소는 신안 자은·암태·팔금·안좌·비금·도초도 연안 해역을 관할한다. 또 항·포구 71개소, 대항선고소 13개소, 4,651세대 9,380여명의 주민의 안전

과 해양종사자 2,619명 및 어선·다중이용 선박 약 800여척의 안전을 맡다.

서삼석 의원은 “신안파출소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도서 주민에 대한 안전과 다양한 해양안전 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영진 목포해경서장은 “이번 신안 파출소 출범으로 신안 도서지역의 해상치안·안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 전담기관으로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김동균 기자

신안 태풍 선제적 대응 피해 최소화 눈길

구조물 결박·배수로 정비

신안군은 최근 발생한 제8호 태풍 ‘바비’에 선제적으로 대응, 피해를 최소화해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태풍 바비에 대비해 실과소장들이 잠적한 가운데 읍·면장들과 화상 회의를 잇따라 갖고 사전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 한데 이어 피해 최소화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했다.

신안군은 태풍예보에 예의 주시하면서 14개 읍·면별로 침수 우려 주택 16동에 수중 모터를 설치하고 주택과 구조물, 비닐하우스 600동을 결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또 어선 1,400척과 바람이 많이 닿는 부잔교 106개소 도교 인양을 비롯해 양식시설 1만 9,200개소, 가로수 1,300여주와 정자시설 120개소 결박, 배수갑문 이물질제거, 배수로·담수로 정비 등 만전을 기했다.

특히 바비의 영향권에 있던 흑산면은 박길호 면장과 직원, 이장단, 주민들이 힘을 모아 마을 곳곳의 구조물들을 결박해 피해를 크게 줄였다.

박 면장은 “8호 태풍 바비가 강한 바람



신안군은 최근 발생한 제8호 태풍 ‘바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 했다. /신안군 제공

으로 크게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돼 120m, 250m 밧줄 250롤을 목포에서 어렵게 공수해 면사무소 직원과 이장, 마을 주민 등이 나서 함석, 양철 지붕을 비롯 주택과 구조물에 대해 결박을 철저히 했다”고 말했다.

박준호 이장은 “흑산면과 흑산군도는 지난해에도 태풍으로 300여채의 주택 파손과 양식장 피해 등이 잇따랐다”며 “이번 태풍에 대비해 주택과 마을 정자, 휴게소, 시설물 등을 밧줄로 꼭꼭 묶어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해 26일 오전 박길호 흑산면장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상황에 대해 묻고 박 면장으로부터 결박 효과를 듣고 격려한데 이어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회의 및 태풍 마이스크 대비 시장, 군수 화상회의에서 모범 사례로 언급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신안군의 태풍 ‘미탁’ 북상 때 대처상황에 대해서도 강풍, 폭우 등 자연재난 사전 대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전남 모든 지자체에 우수사례로 알릴 것을 지시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무안, 교통문화지수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

무안군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19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전년대비 순위 향상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토부 장관 기관표창과 상금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교통문화지수는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민의 교통안전의식과 교통문화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주민들의 운전행태, 보행행태 등 11개 항목을 현장·설문·문헌조사로 평가해 지수화하고, 지역별 비교·평가를 통한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무안군은 시설 개선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이번 2019년 평가에서 교통문화지수 A 등급을 받아 전국 군단위 지자체 중 4위를 기록하며 순위 향상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김산 군수는 “이번 평가에 안주하지 않고 보행자 안전시설과 어린이 보호구역관리, 과속단속카메라와 경보시설 설치 등 교통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한 교통선진도시 무안 만들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무안=박주현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해남, 워킹루 검체채취 부스 설치

해남군은 최근 전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라 분야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방역을 강화했다.

1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해남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워킹루 검체채취 부스를 설치하고,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워킹루 방식은 아르킬 벽으로 의료진과 의심환자를 분리한 상태에서 검체

채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진이 전신 방호복을 입지 않고도 감염위험 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명현관 군수는 “코로나의 급격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해남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합심해 짧지만 강력한 조치를 통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다.

/해남=박병태 기자



영암 신북면, ‘코로나 19 극복’ 기부 잇따라

영암군 신북면에서는 따뜻한 나눔 기부가 이어지면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취약계층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1일 신북면에 따르면 기탁자 박정희 씨는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3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기탁했고,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는 박정희씨의 아버지 박종현 씨가 200만원 상당의 컵라면 480박스

를 보내왔다. 또 신북면 버들농산 류선직 직원이 100만원 상당의 어르신 기저귀를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에 훈훈한 미담사제가 되고 있다.

신북면 관계자는 “기탁한 물품은 신북면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사례관리대상자 등 취약계층 가정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강진 금릉회 장어구이 5kg 30박스 기탁

강진지역 민물장어 양만협회인 금릉회(대표 신영래)는 최근 강진군에 장어구이 150kg을 전달하며 행복한 강진 만들기에 앞장섰다.

기탁한 장어구이 150kg은 시가 약 600만 원 상당으로 각 읍·면 복지회관 및 경로식당, 노인복지시설 9개소, 아동시설(강진자비원)과 장애인시설(장애인종합복지관, 은혜원) 등 총 27개소

에 전달됐다.

신영래 대표(세경양반 운영)는 “코로나19로 야외활동도 힘들어지고 폭염까지 겹쳐 힘든 상황에서 모두 건강تان 여름 나기를 기원하며 작은 힘을 보탠다”며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